

♥ Pray for Romania ♥

2022년 3월 기도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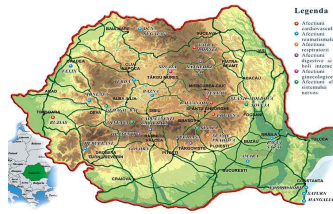


김 권능 / 주 향기 가정
(은비, 은석, 은찬)

E-mail : sang-m@hanmail.net

카톡 I.D : minicool7

M.Phone : 40) 770 526 045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William Carey)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이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목적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주선생**을 통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를 요청 드립니다.

** 루마니아를 함께 품어 주세요.

1. 루마니아 상황.

현재 루마니아의 비자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전까지는 늦어도 두 달 정도면 모든 진행이 끝나고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보통 6개월 가까이 걸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자 서류 가운데 몇 가지는 한 달 이내의 것이 첨부되어야 해서 끝날때까지 다시 그 서류를 계속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비자를 받아야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비자 받는 과정을 6개월씩이나 걸리게 되니 다른 일들까지 문제가 되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향 떠난 나그네의 삶이 어떤지 계속 잊지 않게 환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쉬지말고 끊임없이 그분만 바라보고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비자를 속히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 태권도로 관계를 만듭니다.

태권도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BCA 학교 태권도 교실은 일부러 정신교육시간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태권도 정신이나 배우는 목적, 태도, 친구들과의 관계 등 설명을 해줍니다.

간혹 아이들 중에 ‘아니 태권도 사범님이 태권도 시간에 왜 저런 말을 하는거지?’ 하는 듯 눈이 동그래져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살짝 긴장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자세가 더 좋아지는 상황들을 보며 주님께 감사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닌 주께서 저들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긴장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2. 대학교 수업에서는 2월 말에 최종적으로 학교 강당사용이 불허가 되어 장소를 급하게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교회에서 태권도 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건물을 렌트하는것을 지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셔서 현재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현지의 태권도 사범들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이곳의 태권도 사범님들을 만나 교제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잘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루마니아의 사범님들과 만나 함께 운동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한 발짝씩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모임과 세미나를 가졌는데, 주일에 또 미팅 날짜를 잡기에 공개적으로 저는 크리스찬이라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므로 안된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한걸음, 한걸음씩 인도하시는것을 계속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저 감사하며 순종하는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둘, 한국어와 문화수업

주 선생의 수업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주선생의 기도가 만나는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 더욱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은혜와 감사함



2. 가족들 상황

며칠 전에 한국에 계신 올해 88세 되신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되셨는데 든든한 기도의 지원자이신 **어머니(방순이 권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끔 지치고 힘들 때 지금 여긴 어디고 난 무엇하고 있지?를 되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하는 고백을 하도록 붙들여 주시는 주님과 이 시간에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교회와 동역자님들이 계심으로 굳건히 서게 됩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3 년 3 월 11 일
(믿음으로 돌파하는 2013년)**

김 권능, 주 향기 드림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1. 비자를 속히 받을 수 있도록.
2.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3.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능력 주시도록.
4. 사역과 예배를 병행할 장소(센터)가 준비되도록.

계좌 : (KEB하나은행)

990-018691-507

이름 : 해외부 김 상 민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세요